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이 안 나

조선대학교 / 교수

강 영 신†

전남대학교 / 교수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효과크기를 메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회도서관, 한국학술정보원의 데이터베이스에서 2005년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발행된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제시한 국내 석·박사논문 및 학술지 논문 총 27편을 선정하였고, 관련 변인으로 보호요인인 사회적 지지, 사회적 참여,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임파워먼트, 위험요인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로 총 7개의 변인을 추출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의 보호요인은 중간 효과크기를 나타냈고, 하위변인 중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사회적 참여 순으로 중간 크기의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의 위험요인은 중간 효과크기를 나타냈고, 하위변인 중 우울은 중간 크기의 효과를,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작은 크기의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 거주 기간, 언어능력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메타 회귀분석한 결과, 거주 지역과 언어능력에 따라 삶의 질과 위험요인 간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상담을 위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메타분석, 삶의 질,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상담

* 본 연구는 2019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강영신,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357호

Tel : 062-530-2652, E-mail : lavieenrose@jnu.ac.kr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국내 외국인의 유입은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와 더불어 1990년대 중반부터 국제결혼을 통한 외국인의 유입도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2018)에 의하면 국내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혼인은 1998년 약 1만 2천 건에서 2018년 약 2만 3천 건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전체 혼인의 8.8% 정도를 차지한다. 그 중 약 83.2%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으로,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는 데 여성결혼이민의 유형이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노동자와는 달리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은 대다수가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기 때문에 이들의 질 높은 적응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사회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배타적 문화와 순혈주의 사상으로 차별과 냉대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이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적응 과정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김혜은, 2012). 이러한 이유로 국내 여성결혼이민자 역시 만성적 긴장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어서 고립된 환경에서 이를 적절히 해소할 만한 기회를 갖지 못해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적인 문제를 경험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권구영, 박근우, 2007; 김광일, 1991; 양승민, 연문희, 2009).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주로 사회복지학, 행정학, 교육학, 간호학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들의 긍정적인 적응과 삶의 만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다문화상담 개입이 필요하며 효과적일 수 있는지

에 관한 상담심리학 관점의 연구는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 다문화상담 현황 연구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까지 다문화 관련 연구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들의 심층적 연구가 아닌 실태조사가 주를 이루어(임은미, 정성진, 김은주, 2009), 그들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다문화인구의 증가는 그들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다문화상담의 요구도 더욱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최미희, 2017). 실제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결혼생활과 더불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상담 서비스의 필요성을 보고하였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이에 한국사회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상담적 개입은 이들에게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주은선, 조병주, 이현정, 2012).

국제결혼 초반 시기인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그들의 생활실태 및 욕구 분석, 한국사회에서의 초기 적응, 그리고 사회복지 차원의 정부 정책과 같은 일차원적인 관심과 지원이 대부분이었다(설동훈, 이해경, 조성남, 2006; 정기선, 한지은, 2009). 하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는 그들의 정신건강, 심리적 안녕감 및 삶의 질에 관심을 두고 연구가 시작되었고(e.g., 윤황, 이영호, 2010; 임수진, 오수성, 한규석, 2009), 보다 다차원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성공적인 적응과 심리적 안녕, 즉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 대한 필요성 논의가 점차로 증가하면서 관련 연구들도 증가하고 있다(e.g., 김혜자, 2008; 성도경,

이지영, 2010; 허평화, 2007). 이는 결혼이민여성들이 주류사회인 한국사회에 ‘맞추어’ 살 수 있는 여러 사회적, 제도적 맥락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주관적인 행복과 안녕과 같은 개인적, 심리적 맥락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되었음을 암시한다. 특히, 이들이 한국사회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삶의 질과 관련된 관심은 다문화상담과 같이 이들의 적응과 안녕을 도모하기 위한 조력활동에 많은 함의를 줄 수 있다.

심리적 안녕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주관적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개인이 속한 문화와 가치 체계의 맥락에서 삶에 대해 느끼는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로서(노상충, 서용원, 2014), 개인의 신체적 건강, 심리적 상태, 사회적 관계,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사회적 요인,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환경적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WHOQOL Group, 1994). 다시 말하면, 개인에게 있어서 삶의 질이란 객관적인 상태 또는 조건을 넘어선 개인의 주관적인 측면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의 종합적인 상태이다(김성미, 심인선, 2007; Efkliades, Kalaitzidou, & Chankin, 2003).

한국사회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표적 요인들을 분류하면 경제력, 원만한 인간관계, 정서적 지원, 개인내적 심리적 특성으로서 자기조절 및 자기통제감, 학업성취, 신체적 건강과 기타 요인들이 있다(김의철, 박영신, 2006). 즉, 한국사회에서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은 기본적 자원인 경제력, 친밀감과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인간관계와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과 임파워먼트와 같이 자신의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인 자기통제감, 학업성취, 신체적 건강과 기타 요인들이 있다. 국내 여성결혼이민자의 삶

의 질에 대한 연구도 이러한 변인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 사회적 참여, 임파워먼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결혼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러한 다각적인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과정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양옥경, 송민경, 임세와, 2009). 특히,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데 필수적인 의사소통능력의 어려움은 그들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배제시킬 수 있다(Richter & Pfliegerl, 2001). 즉, 언어와 문화가 다른 한국에서의 생활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충격이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새로운 문화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고유문화와 새로운 문화인 주류문화간의 차이로 인해 겪게 되는 스트레스로(Berry, Kim, Minde, & Mok, 1987),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옥경, 김연수, 2007; 임현승, 2010).

둘째,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더불어 우울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삶의 질과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어, 그들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변인으로 보고되었다(e.g., 강나리, 송정국, 박준혁, 곽영숙, 2016; 이경혜, 김경원, 2011; 이숙경, 2012).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정신건강 관련 연구들에서 이들의 주요 정신건강 문제로 우울을 제시하고 있다(e.g., 김도희, 이경은, 2010;

한인영, 2001). 국내의 한 연구에 따르면(양숙자 등,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40.6%가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로 인한 원가족, 친구, 친지 등과의 관계 상실, 사회적 지지 등과 같은 중요한 자원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고립감, 슬픔, 후회 등이 주가 되는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Hovey & King, 1996). 더불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 배우자보다 우울을 더 자주 경험하는 경향이 있고(정기선, 한지은, 2009), 한국인 남편의 폭력과 학대 등에 노출되어 심한 경우 우울, 무기력감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여진다(양철호 등, 2003).

셋째, 사회적 지지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 및 주변인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지역사회 다양한 지지나 지원인 사회적 지지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경험하는 우울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보호요인 혹은 긍정적 자원으로 보고되었다(임현숙, 2010; 현경자, 김연수, 2012). 더욱이 사회적 지지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e.g., 고은주, 2011; 김순옥, 임현숙, 정구철, 2013; 김정식, 2015; 김희옥, 2014; 문무현, 한진환, 2018; 서재복, 임명희, 2018a; 서재복, 임명희, 2018b; 아사미 게이코, 2018; 이홍자, 김춘미, 박명숙, 2015; 임명희, 2017). 사회적 지지란 긍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에 속해 있다는 개인의 지각으로(Wills, 1991),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과 만족감 및 행복감을 결정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

성결혼이민자들은 모국의 사회적 지지 체계와 단절되어 있어서 원가족 또는 모국인의 지지를 받기 어렵고(김순규, 이주재, 2010), 부부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고부 갈등 등으로 인하여 가족들로부터 받는 지지가 다른 집단보다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양옥경 등, 2009).

넷째, 사회적 참여는 사회적 지지와 더불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회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며, 그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삶의 만족 및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배경희, 2013; Ryff & Keyes, 1995). 사회적 참여는 사회구성원이 의사결정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 및 영향력을 끼치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행위로 정의된다(김영인, 설규주,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참여 경험을 질적 방법을 통해 연구한 결과(김은정, 2019; 남부현, 김영인, 김옥남, 2016), 이들은 서비스 수혜대상에서 생산적 주체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사회 일원으로서 자부심과 통합적 정체성을 구축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사회적 참여를 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았고(한아름, 김여진, 2012), 교육과 학습기회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는 생활만족도가 증가하였다(우지혜, 2014). 이처럼 사회적 참여 경험은 문화적응은 물론 개인적인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임파워먼트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사회적 참여를 통해 네트워크가 확장됨으로써 대인적 차원의 임파워먼트가 획득된다. 이들은

개인적 어려움을 사회적 차원에서 인식하게 되고, 공동체의 유지와 지속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원을 탐색하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역량이 강화됨으로써 이들의 임파워먼트가 획득되는 것으로 보인다(김은정, 2019). 이러한 임파워먼트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e.g., 서재복, 임명희, 2018b; 임명희, 2017). 여성결혼이민자는 새로운 문화에서 적응하면서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무기력감을 직면할 때 어려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 즉 임파워먼트를 가짐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통제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그들의 삶의 질은 향상될 수 있다(서재복, 임명희, 2018b; 오옥선, 2014).

여섯째, 개인이 지각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인 자아존중감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변인으로 보고되었다. 개인의 정신건강에 있어서 자신을 가치 있는 개인이라고 지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Markowitz, 2001), 이에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내적 요인으로(최미례, 이인혜, 2003)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적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배경희, 2013).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개인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보다 적응적으로 극복하며 심리적 적응을 할 수 있다(박지연, 2017; 이용교, 2006; Bandura, 1986).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삶의 질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Srivastava & Beer, 2005), 대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그들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박지연, 2017). 이처럼 개인이 지각하는 자기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인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e.g., 고은주, 2011; 문무현, 한진환, 2018; 문형란, 2016; 응우옌 프엉 마이, 2017; 유은광, 김혜진, 김명희,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자아존중감은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변수로 고려된다(유은광 등, 2012).

마지막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개인의 기대와 신념인 자기효능감(Bandura, 1997)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신념인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임을 알 수 있는데(장우귀, 박영신, 김의철, 2007),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자기효능감은 그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e.g., 박현옥, 박경숙, 권오운, 2018; 유은광 등, 2012; 전미영 등, 2019). 이를 고려할 때 자기효능감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새로운 사회에서 건강하게 적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개인의 내적 자원임을 알 수 있다(오옥선, 2014).

한편,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의한 이질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도 지표인 한국사회에서의 거주기간과 언어능력이 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민자가 주류문화에 거주하는 기간은 그들의 삶의 질 및 삶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

을 나타냈다(Statistics Norway, 2018). 주류문화에 거주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문화적응의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언어능력(Fuertes, Alfonso, & Schultz, 2005) 역시 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Lueck & Wilson, 2010). 또한 개인의 삶의 질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에 비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의 삶의 질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성상석 등, 2004; Oguzturk, 2008). 이렇듯 이민자의 삶의 질은 주류문화에 거주한 기간, 거주 지역, 언어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국내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에 관한 변인 연구에서도 그들의 국내 거주 기간, 거주 지역, 언어능력에 관심을 보였지만(김명준, 2012; 김정식, 2015; 문형란, 2016; 이홍자 등, 2015), 이러한 인구나사회학적 특징에 따라 삶의 질과 관련 변인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국내 거주 기간, 거주 지역, 언어능력이 효과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국내 여성결혼이민자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이 한국사회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삶의 질의 중요성이 시사되면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개별 연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은 그들의 삶의 질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제공하지 못한다. 또한 개별 연구들의 상이한 결과들에 대한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통합적인 해석의 어려움이 있다. 이렇듯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상이한 결과들은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 개발 및 다문화상담의 실제에 활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어떠한 연구가 진행되었는지를 한 연구 안에서 비교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의 이들을 위한 다문화상담의 연구 방향과 상담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다문화인구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 개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관련 요인들의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관련 요인들의 효과크기가 연구 대상자의 특성 간 (거주 지역, 거주 기간, 언어능력)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선정 및 수집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효과크기를 분석하기 위해, 국내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갖고 연구가 진행된 2000년대 중반인 200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및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회도서관, 한국학술정보원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여성결혼이민자’, ‘결혼이주여성’, ‘국제결혼이주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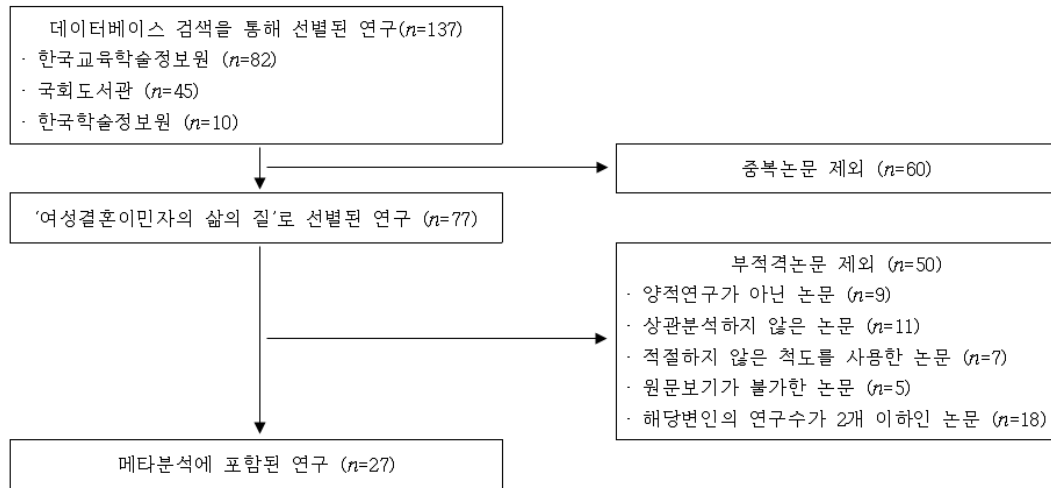


그림 1. 분석대상 논문 선정과정

성', '삶의 질'을 주제어로 검색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수집된 논문들 137편중, 다음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들을 종합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양적 연구들을 분석에 포함하였고, 이에 상담이나 프로그램 효과를 보기 위한 사전·사후 결과를 비교한 연구 또는 질적 연구, 문헌 고찰, 사례 연구는 대상 논문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메타분석에 필요한 상관계수 값 또는 상관계수로 변환이 가능한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가 제시된 연구만을 선정하였다. 넷째, 학위논문이 학술지에 출판되어 자료가 중복된 경우,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원문을 구할 수 없는 논문은 대상 논문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해당 변인에 대한 연구가 2편 이하인 것은 대상 논문에서 제외하였다

(Valentine, Pigott, & Rothstein, 2010).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총 27편(학위 논문 11편, 학술지 논문 16편)을 최종 분석대상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대상 논문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코딩 및 자료 분석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효과크기를 분석하기 위해 삶의 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연구된 논문들의 기본정보(연구자명, 연구제목, 출판유형, 출판연도)와 연구 설계에 대한 정보(독립변인, 종속변인 측정도구, 사례 수), 해당 변인의 효과(상관계수 또는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및 연구 대상자의 특징(거주 지역, 거주 기간, 언어능력)을 Microsoft Excel을 사용하여 입력하였다. 자료수집 선정과정과 자료코딩은 2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검토하였다. 최종 선정된 연구의 코딩에 대한 평가자간 일치도를 확인한 결과, Cohen's Kappa 계수는 .78로 평가자간의 상당

표 1. 메타분석에 포함된 논문목록

번호	출판년도	연구자	출판형태	논문제목	연구변인
1	2008	정주연	학술지	베트남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가족관계와 이주여성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가족관계 사회적 지지
2	2011	고은주	학위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3	2011	이경혜, 김경원	학술지	결혼 이주여성의 사회 문화적 적응과 정서 상태 및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	사회문화적 적응 우울
4	2012	유은광 등	학술지	결혼 이주 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결혼만족도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5	2012	이숙경	학위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 예측모형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외로움 우울 자아존중감
6	2012	장윤경	학위	Andersen의 취약계층 행동모형을 기반으로 한 다문화 부부의 건강 삶의 질	문화적응스트레스 부부적응 사회적 지지
7	2013	안일홍	학위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지지 종교성
8	2013	오금숙, 김윤정	학술지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 부부친밀감, 생활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부부친밀감 사회적 지지 생활만족도
9	2013	김순옥 등	학술지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지지, 가족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가족지지 결혼적응 배우자지지 사회적지지
10	2014	김희옥	학위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해시를 중심으로	사회적 지지 의사소통 유형
11	2014	최경희	학위	국내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사회적 지지, 사회활동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 사회적 지지 사회적 참여
12	2015	김정식	학위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결정요인: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부부적응 중심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 부부적응 사회적 지지
13	2015	이홍자 등	학술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배우자지지 사회적 지지
14	2016	강나리 등	학술지	제주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감과 삶의 질	사회적 기능 우울 정신건강

표 1. 메타분석에 포함된 논문목록 (계속)

번호	출판년도	연구자	출판형태	논문제목	연구변인
15	2016	문형관	학술지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배우자 관계 부모형제 관계 사회적 지지 일반신뢰 자아존중감
16	2016	서재복 등	학술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에 대한 문화적응 매개 효과 연구	문화적응 사회적 지지
17	2017	김민수, 이현지	학술지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사회자본 임파워먼트
18	2017	임명희	학위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참여, 사회적 지지, 임파워먼트 및 삶의 질의 인식차이와 구조적 관계	사회적 지지 사회적 참여 임파워먼트
19	2018	문무현, 한진환	학술지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20	2018	박현옥 등	학술지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 예측모형	건강증진행위 문화적응도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지각된 건강상태 지각된 유익성
21	2018a	서재복, 임명희	학술지	전북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참여,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의 구조적 관계	사회적 지지 사회적 참여
22	2018b	서재복, 임명희	학술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참여, 사회적 지지, 임파워먼트 및 삶의 질의 구조적 관계	사회적 지지 사회적 참여 임파워먼트
23	2018	아사미 게이코	학위	중년기 결혼이주 일본여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	갱년기 증상 문화적응도 사회적 지지 우울
24	2019	손보라	학위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을 매개변수로	사회적응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25	2019	임명희, 서재복	학술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참여,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 및 삶의 질의 구조적 관계 연구	문화적응(전체) 사회적 지지 사회적 참여
26	2019	전미영 등	학술지	결혼이주여성의 지각된 건강상태와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건강문해력,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여성건강지식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건강문해력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여성건강지식 자기효능감 지각된 건강상태
27	2019	천영희	학위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도,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후준비도 자아존중감

주. 학위논문 중에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는 학술지로 구분함.

한 일치도(substantial agreement)를 확인하였다 (Landis & Koch, 1977).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위하여 CMA (Comprehensive Meta Analysis) 3.0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산출, 동질성 검증, 하위집단 분석, 출판편향을 분석하였다. 효과크기 산출을 위해 상관계수(r)를 Fisher의 z 값으로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상관계수보다 Fisher의 z 값이 더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이다 (Borenstein, Hedges, Higgins, & Rothstein, 2009). 이후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Fisher의 z 값을 다시 상관계수로 변환하여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출된 효과크기를 Cohen(1988)의 효과크기 해석 기준에 따라 $r \leq .10$ 은 작은 효과크기, $r = .30$ 은 중간 효과크기, $r \geq .50$ 은 큰 효과크기로 해석하였다.

메타분석의 연구모형으로 고정효과 모형과 무선평형 모형이 있는데, 고정효과 모형은 분석에 포함되는 개별 연구들의 효과크기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모형으로, 메타분석을 통해 산출된 결과를 모집단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반면, 무선평형 모형은 분석에 포함되는 개별 연구들의 효과크기가 다를 수 있다고 가정하는 모형으로, 산출된 결과를 모집단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Hedges & Vevea, 1998). 본 연구에 포함된 개별 연구들의 특징이 이질적이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이 질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일반화가 연구의 목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무선평형 모형을 적용하였다. 연구의 이질성은 연구대상자의 연령, 성별, 연구에서 사용된 중재법과 척도 차이와 같은 연구의 다양성에 의해 발생한다(강현, 2015). 이에 본 연구는 효과크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3개의 조절변인을 설정하여 메타 회귀분석을 통해 효과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검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거주 지역을 ‘서울/수도권’, 서울 및 수도권이 아닌 경우 ‘지방’으로,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이 섞여있어서 구분이 어려운 경우 ‘혼합’으로 구분하여 효과크기를 비교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국내 평균 거주 기간(개월 수)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여 거주 기간에 따른 효과크기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자의 언어능력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여 언어능력에 따른 효과크기를 비교하였다. 언어능력의 경우, 연구대상자가 지각한 언어능력에 따라 ‘상’과 ‘하’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대상자가 지각한 언어능력을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한 경우, 연구대상자가 지각한 평균 언어능력이 2.5점보다 높으면 ‘상’, 2.5점보다 낮으면 ‘하’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출판편향을 분석하기 위해 Funnel Plot과 Egger의 절편검증 방법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효과크기가 작거나 연구의 사례수가 작은 연구들은 그렇지 않은 연구들에 비해 출판될 가능성이 낮고, 따라서 메타분석의 타당성이 위협을 받는데, 이를 출판편향이라고 한다(Begg, 1994). 출판된 연구만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면 개별 연구들의 대표성이 의심되고 편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석 대상이 되는 연구들에 출판편향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unnel Plot을 통해 출판편향을 검증하였다. 출판편향이 확인된 경우, Duval과 Tweedie(2000)가 제시한 Trim-and-Fill 방법을 사용하여 가상의 연구들을 포함시켜 효과크기를 교정하였다. 또한 Egger의 절편검증 방법으로 절편의 유의성을 확인하여 출판편향을 검증하였다. Egger의 절편검증 방법은 정확성을 독립변인으로, 표준화된 효과크기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절편이 유의하면 출판편향을 의심할 수 있다(Rothstein,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관련 변인 추출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을 종속변인으로 한 27편의 연구(N=6,604)를 대상으로 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참여, 임파워먼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로 총 7개의 독립변인을 추출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관련 변인으로 추출된 독립변인으로 삶의 질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사회적 지지, 사회적 참여, 임파워먼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을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삶의 질

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을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위험요인으로 구분하였다. 표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추출된 7개의 변인과 그 효과크기 수를 제시하였다. 추출된 7개 삶의 질 관련 보호요인의 효과크기 개수는 총 39개이고 위험요인의 효과크기 개수는 총 8개였다.

결 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관련 보호요인의 효과크기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과 보호요인의 전체 효과크기와 요인별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

표 2.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관련 연구의 주요변인 및 조절변인

변인		N	k	
보호요인	사회적 지지	21	21	
	사회적 참여	5	5	
	임파워먼트	3	3	
	자기효능감	3	3	
	자아존중감	7	7	
위험요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4	4	
	우울	4	4	
조절변인	거주 지역	39	39	
	보호요인	거주 기간	39	39
	언어능력	39	39	
	위험요인	거주 지역	8	8
	언어능력	거주 기간	8	8
	언어능력	8	8	

주. N: 논문의 수, k: 효과크기의 수

표 3.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관련 보호요인의 효과크기

변인	k	ES _r	95% CI		Z _r	p	Q
			LL	UL			
사회적 지지	21	.445	.357	.526	8.869	.000	285.561***
사회적 참여	5	.355	.117	.555	2.871	.004	92.731**
자아존중감	7	.545	.118	.802	2.429	.015	779.460*
자기효능감	3	.388	.193	.553	3.753	.000	16.252***
임파워먼트	3	.484	.291	.639	4.529	.000	21.642***
전체	39	.451	.358	.535	8.573	.000	1235.303***

주. k: 사례 수, ES_r: 평균효과크기, 95% CI: 95% 신뢰구간(LL 하한값, UL 상한값), Z_r: Fisher's z 값, Q: 동질성 계수

*p<.05, **p<.01, ***p<.001

과는 표 3에 나타난 것과 같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관련 보호요인의 전체 평균 효과크기는 .451(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중간 효과크기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의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모두 정적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의 평균 효과크기는 .445(p<.001), 사회적 참여의 평균 효과크기는 .355(p<.01), 자아존중감의 평균 효과크기는

.545(p<.05), 자기효능감의 평균 효과크기는 .388(p<.001), 임파워먼트의 평균 효과크기는 .484(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Cohen(1988)이 제시한 효과크기 해석 기준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큰 효과크기, 사회적 지지, 사회적 참여, 자기효능감, 임파워먼트는 중간 효과크기에 해당한다.

삶의 질과 보호요인 연구들 간의 이질성을 검증하는 Q값은 1235.303(p<.001)으로 통계적

표 4. 삶의 질과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특성 변인들의 효과크기

변인	ES _r	b	SD	95% CI		Z _r	p
				LL	UL		
보호요인	거주 지역(지방)	.1593	.1362	-.1077	.4263	1.17	.2422
	거주 지역(혼합)	.0746	.1545	-.2283	.3775	.48	.6293
	거주 기간	-.000	.0016	-.0031	.0030	-.03	.9785
	언어능력(상)	-.2612	.1481	-.5515	.0292	-1.76	.0779

주. ES_r: 평균효과크기, b: 기울기, SD: 표준편차, 95% CI: 95% 신뢰구간(LL 하한값, UL 상한값), Z_r: Fisher's z 값

기준집단(0으로 코딩): 거주 지역(서울/수도권), 언어능력(하)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이질성의 원인 분석을 위해 거주 지역(서울/수도권, 지방, 혼합), 거주 기간(개월 수), 언어능력(상, 하)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여 메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메타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삶의 질과 보호요인 간의 관계는 연구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출판편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각적으로 표현한 Funnel Plot을 살펴본 결과, 좌우 비대칭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그림 2와 같이 Trim-and-Fill 방법으로 총 14편의 연구

를 추가하여 효과크기를 교정하였는데, 교정 전 .451에서 교정 후 .572로 차이가 있었다. Egger의 절편검증 결과에 의하면, 표 5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절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p=.194$) 출판편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관련 위험요인의 효과크기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과 위험요인의 전체 효과크기와 요인별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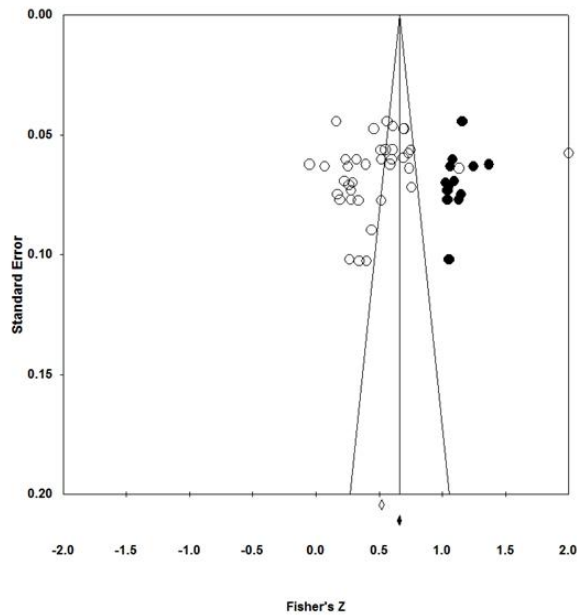


그림 2. 삶의 질 관련 보호요인 연구들의 Trim-and-Fill

표 5. Egger의 절편검증 결과

변인	Intercept	SE	95% LL	95% UL	t	df	p
보호요인	-5.8949	4.4531	-14.9177	3.1280	1.3238	37	.1937

주. Intercept: 절편, SE: 표준오차, 95% LL: 95% 신뢰구간 하한값, 95% UL: 95% 신뢰구간 상한 값, t: t 검정 통계량, df: 자유도

표 6.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관련 위험요인의 효과크기

변인	k	ES _r	95% CI		Z _r	p	Q
			LL	UL			
문화적응스트레스	4	-.266	-.461	-.046	-2.360	.018	28.753*
우울	4	-.681	-.902	-.177	-2.497	.013	215.767*
전체	8	-.494	-.716	-.181	-2.963	.003	329.588**

주. k: 사례 수, ES_r: 평균효과크기, 95% CI: 95% 신뢰구간(LL 하한값, UL 상한값), Z_r: Fisher's z 값, Q: 동질성 계수

*p<.05, **p<.01

과는 표 6에 나타난 것과 같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관련 위험요인의 전체 평균 효과크기는 $-.494(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중간 효과크기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의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모두 부적으로 나타났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평균 효과크기는 $-.266(p<.05)$, 우울의 평균 효과크기는 $-.681(p<.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Cohen(1988)이 제시한 효과크기 해석 기준에 의하면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작은 효과크기, 우울은 큰 효과크기에 해당한다.

삶의 질과 위험요인 연구들 간의 이질성을 검증하는 Q값은 $329.588(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이질성의 원인 분석을 위해 거주 지역(서울/수도권, 지방, 혼합), 거주 기간(개월 수), 언어능력(상, 하)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여 메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메타 회귀분석 결과는 표 7에 나타난 것과 같이 삶의 질과 위험요인 간의 관계는 거주 지역과 언어능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이 '혼합'인 경우(서울/수도권과 지방이 혼합된 연구) 부적으로, 언어능력이 '상'인 경우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

표 7. 삶의 질과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특성 변인들의 효과크기

변인	ES _r	b	SD	95% CI		Z _r	p
				LL	UL		
위험요인	거주 지역(지방)	-.2175	.2629	-.7327	.2977	-.83	.4080
	거주 지역(혼합)	-1.2856	.3865	-2.0431	-.5282	-3.33***	.0009
	거주 기간	-.0001	.0004	-.0008	.0007	-.24	.8097
	언어능력(상)	.5046	.2340	-.0460	-.9632	2.16*	.0310

주. ES_r: 평균효과크기, b: 기울기, SD: 표준편차, 95% CI: 95% 신뢰구간(LL 하한값, UL 상한값), Z_r: Fisher's z 값,

기준집단(0으로 코딩): 거주 지역(서울/수도권), 언어능력(하)

*p<.05, ***p<.001

타났다. 다시 말하면, 거주 지역이 서울과 수도권인 경우, 거주 지역이 ‘혼합’인 경우에 비해 효과크기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삶의 질과 위험요인 간의 효과크기가 음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련성은 더 작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거주 지역이 서울과 수도권인 경우, 거주 지역이 ‘혼합’인 경우에 비해 삶의 질과 위험요인 간 관련성이 더 작다고 할 수 있다. 언어능력이 ‘상’인 경우 언어능력이 ‘하’에 비해 효과크기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 역시 삶의 질과 위험요인 간

의 효과크기가 음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련성은 더 작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언어능력이 ‘상’인 경우, 언어능력이 ‘하’인 경우에 비해 삶의 질과 위험요인 관련성이 더 작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출판편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각적으로 표현한 Funnel Plot을 살펴본 결과, 좌우 비대칭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그림 3과 같이 Trim-and-Fill 방법으로 총 1편의 연구를 추가하여 효과크기를 교정하였는데, 교정 전 -.494에서 교정 후 -.549로 차이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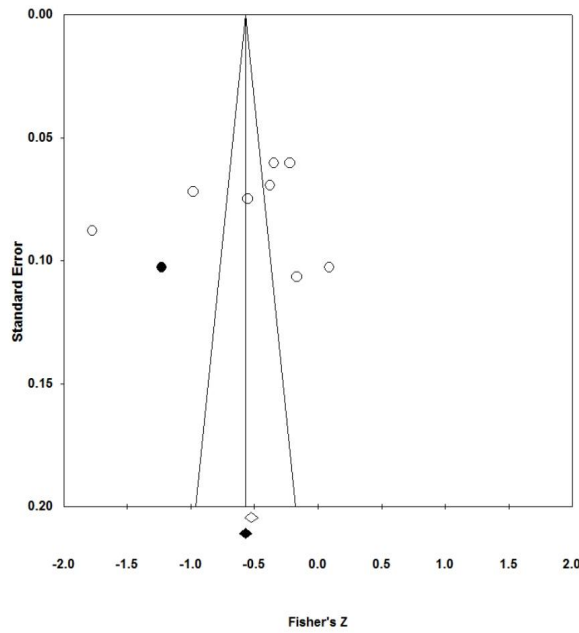


그림 3. 삶의 질 관련 위험요인 연구들의 Trim-and-Fill

표 8. Egger의 절편검증 결과

변인	Intercept	SE	95% 하한값	95% 상한값	t	df	p
위험요인	-4.2908	13.3607	-36.9833	28.4017	.3212	6	.7590

주. Intercept: 절편, SE: 표준오차, 95% LL: 95% 신뢰구간 하한값, 95% UL: 95% 신뢰구간 상한 값, t: t 검정 통계량, df: 자유도

하지만 Egger의 절편검증 결과에 의하면, 표 8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절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p=.759$) 출판편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논 의

세계에서도 가장 동질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한국(Watson, 2010)이 최근 급속도로 다문화사회가 되어 감에 따라 국내의 다양한 다문화인구의 국내 적응과 삶의 만족에 관한 관심은 증가하였다. 특히 대다수가 국내에 정착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적응하는데 중요한 심리적 변인인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개별 연구들의 특성으로 인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어려워, 그들을 위한 다문화상담 연구 방향과 상담 개입에 대한 제언을 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해 살펴보고, 변인들의 효과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국내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27편(학위논문 11편, 학술지 논문 16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변인으로 보호요인인 사회적 지지, 사회적 참여,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임파워먼트로 5개, 위험요인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로 2개, 총 7개의 변인을 추출하였다. 개별연구들의 체계적 이질성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거주 지역, 거주 기간, 언어능력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였고, 출판편향을 확

인하기 위해 Funnel Plot과 Egger의 절편검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에 따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보호요인 중 상대적으로 가장 큰 효과크기를 가진 변인은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다. Diener(1984)는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와 관련 있는 요인 중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것은 자기에 대한 만족감이고, 이에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개인은 자신의 삶에 만족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Campbell(1981) 역시 자아존중감이 높은 개인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보호요인이라는 기존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신미, 2012; Kermode & MacLean, 2001; Scott & Stumpf, 1984; Srivastava & Beer, 2005).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아동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전반적인 발달단계에서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보호요인임을 알 수 있다(김미진, 2016; 김연희, 김기순, 2002; 신미, 전성희, 유미숙, 2010; 신희건, 2007; 윤성이, 이민규, 2016). 본 연구결과에서도 자아존중감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보호요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보호요인 중 두 번째로 큰 효과크기를 가진 요인은 임파워먼트로 나타났다. Abbey와 Andrews(1985)는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신념은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였고, 박영신과 김의철(2006) 역시 자기조절 및 통제감은 한국사회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그들의 개인적 역량인 임파워먼트를 증가시키

는 것은 그들이 새로운 문화에서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여 그들의 전반적인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주은선 등, 2012). 이에 자신을 둘러싼 환경 및 타인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인 임파워먼트는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고, 본 연구에서도 임파워먼트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호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보호요인 중 세 번째로 큰 효과크기를 가진 요인은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우울과 불안을 낮추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Abbey, Abramis, & Caplan, 1981),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송현심, 성승연, 2015; Abbey & Andrews, 1985).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감이 높은 고등학생의 삶의 질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신승배, 2018). 서경현(2006)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언급하였다. 국내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보고한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높은 삶의 질과 생활만족도를 보고하였다(오금숙, 김윤정, 2013). 단일 연구가 아닌 여러 연구들을 종합하여 분석한 본 연구에서도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자원임이 확인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보호요인 중 네 번째로 큰 효과크기를 가진 요인은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 임파워먼트와 마찬가지로 자기조절 및 통제감과 관련 있는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삶의 질과 만족도, 심리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박영신, 김의철, 2006; Suldo & Huebner, 2006),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은 그들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설명하는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다(박영신, 김의철, 2009; 신승배, 2018). 청소년뿐만 아니라 노인의 삶의 질에 있어서도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예측변인임을 알 수 있는데(김의철, 박영신, 2006), 나이가 들수록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영신, 김의철, 2006). 이처럼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통제감은 개인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Ng, Woo, Kwan, & Chong, 2006),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삶의 질에도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보호요인은 사회적 참여로 나타났다. 사회적 배제는 삶의 질을 위협하는 반면(Eurofound, 2014), 적극적인 사회 참여는 개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김나영, 2007). 사회적 참여의 긍정적인 효과는 모든 발달단계에서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청소년뿐만 아니라 노인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삶의 질과 주관적 행복감을 예측하였다(주경희, 2011; Ryff & Keyes, 1995). 사회적 참여는 새로운 문화권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속감을 가지며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므로(배경희, 2013), 활발히 지역사회활동을 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이형하, 2010). 따라서 여성결혼이

민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과 보호요인 간의 관계에서 연구 대상자의 특성(거주 지역, 거주 기간, 언어능력)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를 메타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모두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 지역, 거주 기간, 언어능력이 그들의 삶의 질과 보호요인 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 지역이 도시인 경우(윤황, 이영호, 2010; Eurofound, 2014), 국내 거주 기간이 길수록(고은주, 2011), 한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나수록(김민경, 2011, 서혜연, 2016) 그들의 삶의 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삶의 질과 보호요인 간의 관계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 지역, 거주 기간, 언어능력은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이 존재한다면 그들의 국내 거주 지역, 거주 기간 및 언어능력과는 상관없이 그들은 한국사회에서 삶의 만족감을 느끼며 그들의 삶의 질은 향상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위험요인인 우울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중 상대적으로 가장 큰 효과크기를 가진 변인은 우울로 나타났다. 개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와 우울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최연희, 2004; Abbey & Andrews, 1985), 국내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우울은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실, 정영미, 2011; 박은희, 조인주, 2012).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우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효과크기를 나타내기는 했지만,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인 역시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민자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 중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는데(송미경, 지승희, 조은경, 임영선, 2008; Gomez, Miranda, & Polanco, 2011; Williams & Berry, 1991),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는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Miller, Yang, Farrell, & Lin, 2011). 우울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부정적인 심리적 상태가 개인의 주관적인 안녕감과 행복감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박지연, 2017)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과 위험요인 간의 관계에서 연구대상자의 특성(거주 지역, 거주 기간, 언어능력)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를 메타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거주 지역과 언어능력은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거주 지역이 서울 및 수도권인 경우, 거주 지역이 혼합지역(서울/수도권과 지방)인 경우에 비해 삶의 질과 위험요인의 관련성이 더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혼합지역과 비교해서 위험요인, 즉 우울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그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덜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농촌에 거주하는 개인은 도시에 거주하는 개인보다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성상석 등, 2004; 윤황, 이영호, 2010; Eurofound, 2014; Oguzturk, 2008). 농촌지역과 비교하여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은 도시지역에서의 접근이 용이한 보건·복지 서비스, 교육서비스, 다양한

일자리와 활발한 문화·여가 생활을 이유로 도시에서의 삶을 추구하였고, 결과적으로 도시에서의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도채, 심재현, 유은영, 2016). 하지만 거주 지역에 따른 조절효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이 거주 지역을 명확히 분류하여 제시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이 섞여 있는 혼합지역으로 입력됨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과 위험요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거주 지역에 따른 조절효과를 명료하게 확인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 지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함으로써 거주 지역이 삶의 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거주 지역의 조절효과와 더불어, 언어능력 역시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과 위험요인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언어능력이 ‘상’인 경우 언어능력이 ‘하’인 경우에 비해 삶의 질과 위험요인의 관련성이 더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언어능력이 ‘상’인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와 비교해서 위험요인, 즉 우울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그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이 덜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어로 의사소통의 불편함이 없는 여성결혼이민자는 의사소통의 불편함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우울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그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홍자 등(2015)의 연구에서도 언어능력이 좋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삶의 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찍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들로 이뤄진 미국사

회에서도 이민자의 언어능력이 그들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계 미국인 이민자의 경우, 높은 수준의 언어능력은 낮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높은 삶의 질을 예측하였다(Lueck & Wilson, 2010; Mui, Kang, Kang, & Domanski, 2007). 이렇듯 높은 수준의 언어능력은 주류사회에 보다 잘 적응하도록 돕고(Poyrazli, Arbona, Bullington, & Pisecco, 2001),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을 완화시키는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uru & Poyrazli, 2007; Nicassio, Solomon, Guest, & McCullough, 1986). 따라서 새로운 문화권에 적응해야 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효과적이며 접근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편, 여성결혼이민자의 국내 거주 기간은 그들의 삶의 질과 위험요인 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새로운 문화권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개인의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ics Norway, 2018). 하지만 국내 거주 이주민의 경우, 한국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의 삶의 질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박정숙, 박옥임, 김진희, 2007). 특히 김정혜(2009)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결혼이민자의 국내 거주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국내 거주기간이 긴 경우와 비교해서 그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거주 기간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과 위험요인 간의 관계를 완충하는 조절변인 역할을 나타내지 않았다. 거주 기간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주민의 거주 기간은 문

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Kim, 2013; Kuo & Roysircar, 2004).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위협요인, 즉 그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수준이 높을 때 그들의 국내 거주 기간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삶의 질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들이 국내에 오랜 기간 거주하더라도 그들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 그들의 삶의 질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앞선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은 효과크기순으로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사회적 참여이었으며,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은 효과크기 순으로 우울,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은 강화하고, 하락시키는 요인은 제거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한국사회에 적응하도록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 자기효능감과 같은 요인은 개인의 심리적 통제감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원에 대처하는 대처 전략과도 같다(Ng et al., 2006). 심리적 통제감은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서, 개인의 임파워먼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스트레스, 우울 및 불안 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Huebner & Gilman, 2006).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가장 큰 효과를 지닌 변인으로 보고되었으나, 자아존중감이 가장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본 메타분석 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다문화상담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한국의 경제적 혜택을 얻기 위한 존재라기보다 다문화사회로 급변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제도적 프로그램 혹은 개인적 개입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특히, 소수집단으로서 주류사회인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개입과정에서 임파워먼트는 매우 중요한 역량 중 하나이다(최가희, 2018). 임파워먼트를 기반으로 한 상담적 개입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주체성을 가진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인식하도록 도와 그들의 자아존중감이 회복되고 정체성을 확립하여 그들의 심리적 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주은선 등, 2012). 임파워먼트 접근은 여성, 특히 재취업여성, 차별이나 학대받는 여성, 이혼여성 등의 집단에 매우 유용한 접근이다(Browne, 1995). 임파워먼트는 문제해결능력 및 자원활용능력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서(Gibson, 1991), 소외감을 줄이고 대인관계를 확장시키는데 유용하다고 여겨진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연구들(e.g., 강만철, 이숙자, 2017; 최정숙, 오지영, 2011; 함정현, 정혜경, 권명희, 2009)에서 자아존중감과 임파워먼트가 향상이 되면 사회적 지지가 향상되는 것으로 보아, 사회적 지지라는 환경적인 개입에 앞서 이들 자신이 스스로 유능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길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러한 개인 내적인 변인에 대한 개입뿐만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참여

를 할 수 있고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내적 통제감을 느끼고 높은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개인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높은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 낮은 우울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보고하였다(김현실, 2011; Abbey & Andrews, 1985; Schaefer, Coyne, & Lazarus, 1981; Thomas & Sumathi, 2016). 국내 거주 중인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참여는 낮은 수준으로(최윤정 등, 2019) 한국사회에서의 소속감 결여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다(김영란, 2006).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세 명 중 한명은 가족 이외에 도움을 요청할 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최윤정 등, 2019). 특히 노년기 남편을 둔 여성결혼이민자에 관한 연구(이명화, 이윤정, 2014)에서 보고한 대로 어려울 때 의논상대가 한국인일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한국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다문화상담자가 보다 확대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 즉, 다문화상담자가 상담, 치료, 교육, 정보 등을 제공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 내담자가 다른 한국인과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인적 자원 개발 및 지역사회 내 옹호 활동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강영신, 2016). 더불어, 지역사회의 각 기관들과의 협력과 자문활동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저항(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들의 삶의 질을 이해할 때 미시적 수준(예: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 자아효능감 등) 뿐 아니라, 거시적 수준(예: 사회적 참여)의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다문화상담의 사례개념화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이들을 위한 개입 전략의 순서를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우선으로 하여, 임파워먼트의 향상, 사회적 지지의 증대의 순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사회적 지지는 이들의 자아효능감 향상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참여가 최종적인 목표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을 제거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다문화상담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와 우울은 개인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Abbey & Andrews, 1985). 본 연구결과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가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은 그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그들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고립과 사회 부적응과 같은 여러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러한 어려움은 우울 및 자살사고를 악화시키거나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조현정, 연병길, 한창환, 류성곤, 이상신, 2012; Hoschl et al., 2008; Martin & McIntosh, 1997). 이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스트레스와 우울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이민자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지지 체계는 우울을 예방하고 자살발생률을 감소할 수 있다(권규일, 강덕지, 함근수, 표주연, 1997; 김현실, 2011; Fenta, Hyman, & Noh, 2004).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우울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같은 성공적인 경험을 격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우울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

울이 상실과 관련된 정서임을 고려할 때(강영신, 이동훈, 2019), 한국사회에서 새롭게 습득하는 성취 경험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2000년대 중후반부터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들의 삶의 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개별연구들의 양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배경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의 동일집단으로 간주하여 연구가 실행되어졌다. 또한 그들의 긍정적인 심리적 자원에 초점을 둔 연구보다는 그들의 외적 자원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면서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향후 그들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양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여성결혼이민자의 국가 별로 그들의 심리적 자원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개별연구 중 거주 지역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이 혼합된 개별연구들로 인해 거주 지역에 대한 조절효과를 명확히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더불어, 이민자라는 특성상 거주 지역뿐 아니라 언어능력 등과 같은 변인이 중요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이러한

변인들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언어능력을 ‘상’과 ‘하’로만 분류하여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로 급변하는 현재 시점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개인내·외적인 변인들의 효과크기를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 자아효능감 등과 같은 개인 내적 자원을 증진시키고, 개인 외적 변인인 사회적 참여와 사회적 지지를 증대시키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과 같은 정신 건강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다문화상담 관련 프로그램 개발, 사례개념화 및 심리적 개입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표가 있는 것은 메타분석에 포함된 참고문헌임.
- *강나리, 송정국, 박준혁, 곽영숙 (2016). 제주 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감과 삶의 질. *우울조울병*, 14(2), 101-106.
- 강만철, 이숙자 (2017).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존중감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복지상담교육연구*, 6(2), 83-108.

- 강영신 (2016). 다문화 상담 면접 기법: 다문화 면담의 준비 과정에서 보고서 작성까지. 서울: 학지사.
- 강영신, 이동훈 (2019). 애도상담의 실제: 강점 기반 애도상담을 위한 평가와 개입 워크북.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 강현 (2015). 메타분석에서 통계학적 고려사항들. *Hanyang Medical Reviews*, 35(1), 23-32.
- *고은주 (2011).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성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구영, 박근우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전라남도 거주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사회연구*, 14(2), 187-219.
- 권규일, 강덕지, 함근수, 표주연 (1997). 자살에 관한 연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연보*, 29, 175-193.
- 김광일 (1991). 해외동포의 문화적응과 정신건강. *정신건강연구*, 10, 119-153.
- 김나영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와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도희, 이경은 (2010). 결혼이민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경로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2), 5-25.
- 김명준 (201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진 (2016). 중년 미혼 여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경 (2011). 한국사회로 결혼이주한 아시아 여성의 사회자본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수, 이현지 (2017).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56, 225-250.
- 김성미, 심인선 (2007). 여성장애인의 모성경험 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여성연구*, 72(1), 73-107.
- 김순규, 이주재 (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과 사회적 지지가 한국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1), 5-20.
- *김순옥, 임현숙, 정구철 (2013).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지지, 가족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1), 221-235.
- 김연희, 김기순 (2002).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과의 관계 연구. *노인복지연구*, 17, 157-189.
- 김영란 (2006).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여성빈곤 그리고 탈빈곤정책. *한국사회학*, 40(2), 189-226.
- 김영인, 설규주 (2008). *시민교육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김은정 (2019). 여성 결혼이민자의 공동체 참여경험 및 적응과정 연구. *인문사회21*, 10(2), 113-128.
- 김의철, 박영신 (2006).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5), 1-28.
- *김정식 (2015).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결정요인: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부부적응 중심으로.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혜 (2009).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

- 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실 (2011).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 생활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정신간호학회지*, 20(2), 188-198.
- 김현실, 정영미 (2011).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한국자료분석학회*, 13(5), 2417-2432.
- 김혜은 (2012). 다문화교육의 심리학적 이해. 서울: 학지사.
- 김혜자 (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배우자 지지, 건강교육 요구와 삶의 질.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4(1), 5-11.
- *김희옥 (2014).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해시를 중심으로. 가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부현, 김영인, 김옥남 (2016). 공공기관 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0(2), 101-133.
- 노상충, 서용원 (2014). 일터여성 5요인 모형의 개념화 및 척도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7(2), 419-447.
- *문무현, 한진환 (2018).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6(7), 165-175.
- *문형란 (2016).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30(2), 215-234.
- 박영신, 김의철 (2006). 한국 사회와 개인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탐구: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1), 161-195.
- 박영신, 김의철 (2009). 한국 청소년의 행복: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과 학업성취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5(3), 399-429.
- 박은희, 조인주 (2012).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8(2), 29-54.
- 박정숙, 박옥임, 김진희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59-70.
- 박지연 (2017). 대학생의 낙관성과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재활심리연구*, 24(1), 171-182.
- *박현옥, 박경숙, 권오윤 (2018).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 예측모형. *디지털융복합연구*, 16(1), 357-369.
- 배경희 (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가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41(9), 33-54.
- 서경현 (2006). 고령화 사회에서 한국인의 건강과 삶의 질.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5), 133-147.
- *서재복, 권인탁, 임명희 (201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에 대한 문화적응 매개효과 연구. *교육종합연구*, 14(1), 225-246.
- *서재복, 임명희 (2018a). 전북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참여,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의 구조적 관계. *교육종합연구*, 16(1), 173-193.
- *서재복, 임명희 (2018b).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참여, 사회적 지지, 임파워먼트 및 삶의 질의 구조적 관계. *국제이해교육연구*, 13(2), 157-181.
- 서혜연 (2016).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망, 가족건강성과 삶의 질. *한남대학교 대학원*

- 석사학위논문.
- 설동훈, 이해경, 조성남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 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성도경, 이지영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22(3), 749-772.
- 성상석, 최찬범, 성윤경, 박용욱, 이해순, 엄완식, 김태환, 전재범, 유대현, 이오영, 배상철 (2004). 한국인에서 EQ-5D를 이용한 건강 관련 삶의 질 측정. 대한류마티스학회, 11(3), 254-262.
- *손보라 (2019).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을 매개변수로. 칼빈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미경, 지승희, 조은경, 임영선 (2008).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부모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97-517.
- 송현심, 성승연 (2015). 사회적 지지가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1), 129-157.
- 신 미 (2012). 청소년 삶의 질 척도 타당화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4(1), 163-194.
- 신 미, 전성희, 유미숙 (2010). 청소년의 삶의 만족과 안녕에 관한 요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17(9), 131-150.
- 신승배 (2018). 한국 청소년 삶의 질 결정요인. 사회과학연구, 29(1), 195-217.
- 신희건 (2007). 학령기 후기 아동의 삶의 질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자료분석학회, 9(6), 485-499.
- *아사미 게이코 (2018). 중년기 결혼이주 일본여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일홍 (2013).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숙자, 김정아, 김성남, 최혜영, 박찬선, 단현주 (2009). 도시와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의 건강개념, 건강상태와 보건의료이용에 관한 연구. 건강증진연구사업보고서.
- 양승민, 연문희 (2009).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스트레스 요인과 반응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4), 943-966.
- 양옥경, 김연수 (2007). 서울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6(1), 79-110.
- 양옥경, 송민경, 임세와 (2009). 서울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137-168.
- 양철호, 김영자, 손순용, 양선화, 신봉관, 조지현 (2003). 외국인주부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연구: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16, 127-149.
- *오금숙, 김윤정 (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 부부친밀감, 생활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건강학회지, 3(1), 15-25.
- 오옥선 (2014).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정정서, 심리적 안녕감 및 임파워먼트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1), 45-65.
- 우지혜 (2014).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부부평등, 사회

- 적 지지, 사회참여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옹우옌 프엉 마이 (2017). 결혼이주여성의 경제 활동 만족도가 삶의 질, 우울증,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은광, 김혜진, 김명희 (2012). 결혼 이주 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42(2), 171-180.
- 윤성이, 이민규 (2016). 정치이념 성향과 행복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낙관성의 매개효과 탐색: 20대 연령을 대상으로. 청소년학연구, 23(7), 317-332.
- 윤 황, 이영호 (2010).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3), 659-684.
- *이경혜, 김경원 (2011). 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정서 상태 및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5(2), 121-131.
- 이명화, 이윤정 (2014). 노년기 남편을 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인적지지와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2(9), 47-62.
- *이숙경 (2012).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 예측모형.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용교 (2006). 디지털 청소년복지. 서울: 인간과 복지.
- 이형하 (2010).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지역 사회활동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3), 219-245.
- *이홍자, 김춘미, 박명숙 (2015).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6(3), 268-277.
- *임명희 (2017).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참여, 사회적 지지, 임파워먼트 및 삶의 질의 인식차이와 구조적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명희, 서재복 (2019).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참여,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 및 삶의 질의 구조적 관계 연구. 교육종합연구, 17(1), 1-19.
- 임수진, 오수성, 한규석 (2009).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요인: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4), 515-528.
- 임은미, 정성진, 김은주 (2009). 국내 다문화 연구와 다문화 상담 연구의 현황. 상담학연구, 10(3), 1291-1304.
- 임현승 (2010). The impact of acculturative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in Korea: An examination of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한국가족복지학, 15(2), 27-45.
- 장우귀, 박영신, 김의철 (2007). 대학생의 인간관계,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토착문화심리적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25, 1-21.
- *장윤경 (2012). Andersen의 취약계층 행동모형을 기반으로 한 다문화 부부의 건강 삶의 질.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미영, 채영란, 강소연, 이희영, 김명미, 박성희, 최현희 (2019). 결혼이주여성의 지각된 건강상태와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건강문해력,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여성건강 지식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환경학회지, 26(2), 273-282.
- 정기선, 한지은 (2009). 국제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정신건강. 한국인구학, 32(2), 87-114.

- 정도채, 심재현, 유은영 (2016). 2016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농림축산식품부.
- *정주연 (2008). 베트남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가족관계와 이주여성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학생연구논총*, 1, 228-262.
- 조현정, 연병길, 한창환, 류성곤, 이상신 (2012). 하남시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예비연구. *사회정신의학*, 17(2), 108-115.
- 주경희 (2011). 사회참여노인의 활동수준과 삶의 질: 성별과 연령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2), 5-39.
- 주은선, 조병주, 이현정 (2012). 결혼이주여성의 상담 체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1), 45-76.
- *천영희 (2019).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도,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가희 (2018). 사회정의와 상담심리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2), 249-271.
- *최경희 (2014). 국내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사회적 지지, 사회활동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미례, 이인혜 (2003).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2), 363-383.
- 최미희 (2017). 다문화상담 및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 다문화학생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인간*, 6(1), 1-29.
- 최연희 (2004).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건강증진 행위와 삶의 질.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1(2), 87-100.
- 최윤정, 김이선, 선보영, 동제연, 정해숙, 양계민, 이은아, 황정미 (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최정숙, 오지영 (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임과 워먼트를 위한 미술활용 집단프로그램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3, 319-347.
- 통계청 (2018). 결혼이민자 현황. 통계청.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II).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한아름, 김여진 (2012).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활동, 문화적응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3, 75-104.
- 한인영 (2001).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성향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1(1), 78-94.
- 함정현, 정혜경, 권명희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치행정학보*, 23(2), 329-349.
- 허평화 (2007). 천안지역 국제혼인 이주여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경자, 김연수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효과: 사회적 지지의 직접 및 조절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4), 653-677.
- Abbey, A., Abramis, D. J., & Caplan, R. D. (1981). *Measuring social support: The effects of frame of refer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 support and strain*.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Los Angeles, CA.
- Abbey, A., & Andrews, F. M. (1985). Modeling the psychological determinants of life quality. *Social Indicators Research*, 16(1), 1-34.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NJ: Prentice-Hall.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Y: W. H. Freeman.
- Begg, C. B. (1994). Publication bias. In H. Cooper & L. Hedges (Ed.), *The Handbook of Research Synthesis*. NY: Russell Sage Foundation.
- Berry, J. W., Kim, U., Minde, T., & Mok, D.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3), 491-511.
- Borenstein, M., Hedges, L. V., Higgins, J. P. T., & Rothstein, H. R. (2009). *Introduction to meta-analysis*. UK: John Wiley & Sons.
- Browne, C. V. (1995). Empowerment in social work practice with older women. *Social Work*, 40(3), 358-364.
-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Recent patterns and trends*. NY: McGraw-Hill.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NJ: Erlbaum.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uru, E., & Poyrazli, S. (2007). Personality dimensions, psychosocial-demographic variables, and English language competency in predicting level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Turkish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14(1), 99-110.
- Duval, S., & Tweedie, R. (2000). Trim and fill: A simple funnel-plot-based method of testing and adjusting for publication bias in meta-analysis. *Biometrics*, 56(2), 455-463.
- Efklides, A., Kalaitzidou, M., & Chankin, G. (2003). Subjective quality of life in old age in Greece: The effect of demographic factors, emotional state, and adaptation to aging. *European Psychologist*, 8(3), 178-191.
- Eurofound (2014). *Quality of life in urban and rural Europe*.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 Fenta, H., Hyman, I., & Noh, S. (2004). Determinants of depression among Ethiopian immigrants and refugees in Toronto.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2(5), 363-372.
- Fuertes, J. N., Alfonso, V. C., & Schultz, J. T. (2005). Counseling South American immigrants. *Journal of Immigrant and Refugee Services*, 3(1/2), 155-169.
- Gibson, C. H. (1991). A concept analysis of empowerment.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6(3), 354-361.
- Gomez, J., Miranda, R., & Polanco, L. (2011). Acculturative stress,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vulnerability to suicide attempts among emerging adul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11), 1465-1476.
- Hedges, L. V., & Vevea, J. L. (1998). Fixed- and random-effects models in meta-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3(4), 486-504.
- Hoschl, C., Ruiz, P., Casas, M., Musalek, M., Gaebel, W., & Vavrusova, L. (2008). The

- impact of migration on mental health and mental illness. *European Psychiatry*, 23 (Supplement 2), S42.
- Hovey, J. D., & King, C. A. (1996).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immigrant and second-generation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5(9), 1183-1192.
- Huebner, E. S., & Gilman, R. (2006). Students who like and dislike school.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1(2), 139-150.
- Kermode, S., & MacLean, D. (2001).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health and self-esteem. *Australia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9(2), 33-40.
- Kim, H. S., & Kim, H. S. (2013). Depression in non-Korean women residing in South Korea following marriage to Korean men.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27(3), 148-155.
- Kuo, B. C. H., & Roysircar, G. (2004). Predictors of acculturation for Chinese adolescents in Canada: Age of arrival, length of stay, social class, and English reading ability.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32(3), 143-154.
- Landis, J. R., & Koch, G. G. (1977). The measurement of observer agreement for categorical data. *Biometrics*, 33(1), 159-174.
- Lueck, K., & Wilson, M. (2010). Acculturative stress in Asian immigrants: The impact of social and linguistic fac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4(1), 47-57.
- Markowitz, F. E. (2001). Modeling processes in recovery from mental illness: Relationships between symptoms, life satisfaction, and self-concep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2(1), 64-79.
- Martin, G., & McIntosh, G. (1997). *Creating community: Deeper fellowship through small group ministry*. TN: Broadman & Holman.
- Miller, M. J., Yang, M., Farrell, J. A., & Lin, L. L. (2011). Racial and cultural factors affecting the mental health of Asian American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1(4), 489-497.
- Mui, A. C., Kang, S. Y., Kang, D., & Domanski, M. D. (2007).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Chinese and Korean immigrant elders. *Health and Social Work*, 32(2), 119-127.
- Ng, S. H., Woo, J., Kwan, A., & Chong, A. (2006). Positive ageing: A conceptual framework.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5), 29-43.
- Nicassio, P. M., Solomon, G. S., Guest, S. S., & McCullough, J. E. (1986). Emigration stress and language proficiency as correlates of depression in a sample of Southeast Asian refuge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32(1), 22-28.
- Oguzturk, O. (2008). Differences in quality of life in rural and urban populations. *Clinical and Investigative Medicine*, 31(6), 346-350.
- Poyrazli, S., Arbona, C., Bullington, R., & Pisecco, S. (2001). Adjustment issues of Turkish students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ollege Student Journal*, 35(1), 52-62.
- Richter, R., & Pfliegerl, J. (2001). Living in migration in Austria. *Journal of Comparative*

- Family Studies*, 32(4), 517-531.
- Rothstein, H. R. (2008). Publication bias as a threat to the validity of meta-analytic results. *Journal of Experimental Criminology*, 4(1), 61-81.
-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4), 719-727.
- Schaefer, C., Coyne, J. C., & Lazarus, R. S. (1981). The health-related function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4), 381-406.
- Scott, W. A., & Stumpf, J. (1984). Personal satisfaction and role-performance: Subjective and social aspects of adap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4), 812-827.
- Srivastava, S., & Beer, J. S. (2005). How self-evaluations related to being liked by others: Integrating sociometer and attachment perspecti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6), 966-977.
- Statistics Norway (2018). *Quality of life among immigrants. An analysis of the survey on living conditions among persons with an immigrant background 2016*. Statistics Norway.
- Suldo, S. M., & Huebner, E. S. (2006). Is extremely high life satisfaction during adolescence advantageous? *Social Indicators Research*, 78, 179-203.
- Thomas, F., & Sumathi, G. N. (2016). Acculturative stress and social support among the international students: An empirical approach. *Global Management Review*, 10(3), 61-72.
- Valetine, J. C., Pigott, T. D., & Rothstein, H. R. (2010). How many studies do you need? A primer on statistical power for meta-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and Behavioral Statistics*, 35(2), 215-247.
- Watson, I. (2010). Multiculturalism in South Korea: A critical assessment.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40(2), 337-346.
- Williams, C. L., & Berry, J. W. (1991). Primary prevention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refugees: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theory and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46(6), 632-641.
- Wills, T. A. (1991).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M. S. Clark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2. *Prosocial behavior* (pp. 265-289). CA: Sage.
- WHOQOL Group (1994). Development of the WHOQOL: Rationale and current status.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23(3), 24-56.

원 고 접 수 일 : 2019. 08. 29

수정원고접수일 : 2019. 12. 06

계 재 결 정 일 : 2019. 12. 20

A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and Related Variables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Oan-Na Lee

Chosun University / Professor

Young-Shin Ka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raw comprehensive conclusion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quality of life of married immigrant women and related variables. For this purpose, five protective factors (empowerment, self-efficacy, self-esteem, social participation, and social support) and two risk factors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were chosen from 27 masters' theses, doctoral dissertations and journal articles. The results of the meta-analysis indicated that the effect sizes of the protective factors were in the medium range, with self-esteem being the largest, followed by empowerment,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social participation. Similarly, the effect sizes of the risk factors were medium, with the effect sizes of depression and acculturative stress being large and small, respectively. Residential area and language proficiency had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and risk factors.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in light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re discussed.

Key words : meta-analysis, quality of life, married immigrant women, multicultural counseling